

10월10일 정신건강의 날...전남광주시 행사 ‘다채’

24일까지 정신건강주간 운영

16일 市 광주청사서 기념식

특강·전시·인식개선 캠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5일 “정신건강의 날 (10월10일)”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를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정하고 문화행사와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마주해요, 정신건강은 마주하면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마음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주최하고 광주·전남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하며 27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7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함께 한다.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전남광주특별시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의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에게 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팸플릿 토크콘서트와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리플리스 인간연구소 박재연 소장

이 ‘내 감정을 마주할 때 찾아오는 자유’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행사장 앞에서는 특별시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사업 홍보와 함께 알코올 등 중독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안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특별시 정신건강 문화행사 공식 누리집 또는 전화(062-600-1941~4)로 사전신청하면 된다.

특별시 곳곳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과 행사도 열린다.

8-15일에는 동구 CM아트홀에서 정신질환 당사자 작품 전시 ‘1232(일이삼이) 우리가 마주보는 시간’이 열리며, 14일에는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심리학과 예술을 융합한 ‘심리×음악회’를 개최한다.

이 밖에 토크콘서트(광산구), 음악토크콘서트(여수), 공개 강좌(순천), 중독탈출 프로젝트(동구), 샌드아트공연(신안), 걷기 캠페인(나주·구례·해남·영암·완도)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정환 복지정책관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스스로 마음건강을 돌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홍보 주간을 계기로 마음돌봄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잡고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제27회 서구청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성료 김이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지난 4일 서구 상무시민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제27회 서구청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에서 선수대표로부터 선서를 받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공>

전남광주시, 출범 100일 기념 시민음악회 연다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서

피아니스트 손세혁 등 협연...명곡 선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술의전당이 특별시 출범 100일을 기념해 시민음악회를 개최한다.

5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인투 더 뉴 월드(Into the New World)’가 열린다.

지휘는 ‘춤추는 지휘자’로 알려진 백운학이 맡는다. 백 지휘자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와 작곡과(지휘 전공)를 졸업하고 미국 커티스음악원과 템플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콘서트와 오페라를 아우르는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교향악단, 목포시립교향악단, 카메라타전남 단원들로 구성된 전남광주연합오케스트라와 함께 화합의 선율로 작품의 극적인 에너지와 섬세한 음악적 표현을 이끌어낸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가, 클래식 해설가로 활동 중인 안인모는 콘서트 가이드로 참여해 곡의 배경과 음악적 특징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첫 무대는 토마의 오페라 ‘레이몬드’ 서곡으로 막을 연다.

이어 2026 프라하 봄 국제음악콩쿠르 1위와 3개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주목 받은 피아니스트 손세혁이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협연한다.

후반부에는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이 연주돼 통합의 감동을 더한다.

테너 이재식은 김규환의 가곡 ‘남촌’과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의 대표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Nessun dorma)’를 열창하며 희망찬 메시지를 전한다.

공연의 대미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9번 ‘신 세계로부터’ 중 가장 널리 알려진 4악장(Allegro con fuoco)이 장식한다.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 가격은 R석 2만원, S석 1만원이다.

예매는 예술의전당 누리집과 YES24에서 할 수 있다. (문의 062-613-8232) /변은진 기자

‘민원메신저’ 광주까지 확대...소통망 강화

연찬회에서 14기 운영 방향 등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5일 “민원메신저 활동 영역을 광주까지 확대해 특별시 전역을 아우르는 시민 현장 소통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난 1-2일 거제·통영·여수 일원에서 특별시 출범 후 첫 ‘민원메신저 연찬회’를 열어 제14기 운영 방향과 권역별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민원메신저는 시민 생활현장의 불편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발굴해 행정에 전달하는 시민 참여형 소통창구다. 기존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제14기부터 광주 지역까지 활동영역을 넓혔다.

연찬회에서는 확대된 활동 영역에 맞는 민원메신저 운영 방향과 권역별 활동 활성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민원메신저 활동 교육과 자유토의, 권역별 발전 방안 발표 등을 통해 회원 간 소통과 협력도 강화했다.

첫날에는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매미성 등 지역 현장을 둘러보며 특별시 출범과 여

수세계섬박람회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둘째 날에는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과 중앙시장 등을 방문한 뒤 여수로 이동해 여수세계섬박람회 플로깅과 박람회 관람에 참여하며 홍보에 힘을 보탰다. /최명진 기자

전남광주소방 “단풍철 산악사고 주의”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전남권역부분부가 단풍철을 앞두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9월 산악사고 출동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늘어난 데다 최근 3년간 10월에 가장 많은 출동이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5일 전남권역부분부에 따르면 산악사고 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간 출동 건수는 2023년 71건, 2024년 594건, 2025년 451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올해 1-9월 누적 출동은 351건으로 지난해 359건보다 8건 줄었다.

반면 9월 출동은 56건으로 지난해(35건)보다 21건(60%) 늘었다. 특히 최근 3년간 10월 출동은 총 192건으로 월별 가운데 가장 많아 가을철 산행에 주의가 요구된다. /최명진 기자

‘中企 해외지사화’...20곳 내외 추가 지원

전남광주시 “옛 전남지역 기업도 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6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5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특별시는 올해 20개사 내외를 추가 지원하고 기업별로 최대 2개 해외무역을 활용하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기업 참가비도 최대 80%를 지원해 해외마케

팅에 나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해외에 자체 지사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현지 지사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해외무역을 통해 바이어 발굴, 시장조사, 수출상담, 전시·상담회 참가, 현지 유통망 발굴 등 현지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기존 지원

대상을 옛 전남 지역 기업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체 비용으로 해외지사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비용 부담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기업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바이어 발굴과 시장조사, 현지 마케팅, 수출상담, 계약까지 연계하는 수출 지원체계를 활용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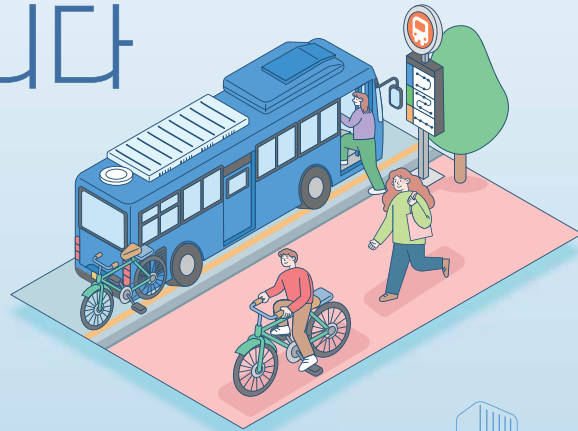
이를 위해 코트라가 보유한 세계 80개국 124개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별 수요에 맞는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수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사업용 운전자(택시, 버스, 화물 등) 법정교육으로 대·자·보 시행을 위한 교통 문화 정착
- 어린이교통공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는 유년 시절부터 “대·자·보” 교통안전 체험교육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찾아가는 어르신교육으로 대자보 교통안전 의식 전환 운동
- TBN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대자보 인문학 강의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미래 기후 교통 환경 대응 역량 강화
- 학생(초·중·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킥보드 문화 정착



교통안전캠페인



운수 종사자 교육



어르신 교육



학생 교육



어린이 교육